

김영록 지사, 핵심 현안·정책 과제 해결 ‘동분서주’

산업통상부·농림부 장관과 릴레이 면담
석화·철강 위기 극복·RE100 특례 건의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등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과 정책 과제를 건의하는 등 서울·세종을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김정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광양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지역의 보통교부세 가산 일몰기한 연장(2025년→2027년), 여수국가산단 중심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양국가산단 ‘수소환원제철 설비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석유화학·철강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수·광양산단을 대규모 공용 ESS 시범사업과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우선 대상지 지정 및 양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RE100 산단 전기요금 50% 이상 할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규제 특례와 함께 입주기업 세제 혜택과 전남 서남권 일원을 국내 1호 RE100 산단 시범단지로 조성해 줄 것과 이차전지 국산 공급망 완성을 위해 이차전지 원료 소재 공급 지역인 전남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형 조선소를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조선업 클러스터’를 형성한 전남 서남권에 AI 전용 통

신망 등 스마트 야드 인프라 조성, 공정별 자율제조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등 ‘AI 자율 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구축’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엔 송미령 장관을 만나 솔라시도 중심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국가 간척지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활용 등의 등을 요청했다.

특히 지속되는 이상고온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배로 피해가 급증한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 조사 후 복구비 지원, 깨씨무늬병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강력 건의했다.

앞서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피해 현장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밝힌 만큼 전남도의 건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밖에도 첨단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AI 첨단 농산업 콤플렉스 조성’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사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적기 대응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2027년 전남에 설립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 등 전남도 건의 현안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산업의 혁신과 에너지·농정 대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전남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필수 현안”이라며 “도민이 염원하는 주요 사업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황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고 있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방문해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F&B 축제인 오는 26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도 제공>

광주서 세계 석학·혁신기업 AI 미래 비전 연다

15-16일 DJ센터서 글로벌AI컨퍼런스
AI반도체·헬스케어 등 최첨단 기술 공유

광주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오는 15-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적 인공지능(AI) 학술대회인 ‘글로벌 AI 컨퍼런스(AICON) 광주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도시·시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전환(AI)의 물결이 광주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의 ‘The AI 웨이브(Wave)’, 광주(Gwangju)’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광주의 AI 미래 비전을 담은 오프

닝 영상으로 시작해 강기정 광주시장 환영사,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개회사, AI 작곡과 피아노 협연 공연 등이 이어진다.

광주시와 AI 기업 10개 사는 오는 15일 ‘광주형 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AI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가 ‘국내 AI산업 육성 정책과 현황’을,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최초 정립한 세계적 명문대학 런던정치경제대학 유영진 교수가 ‘생태계로서의 AI’에 대해 기조강연한다.

특별강연에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중국 AI 분야의 명문대학인 북경우

전대학교 차오 위안위안 교수, 레오 지앙 싱가포르 그라운드 AI 최고경영자가 한국·중국·싱가포르의 AI 정책과 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특별좌담회에서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AI 컴퓨팅센터 유치, AX 실증밸리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한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광주의 길’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역량을 결집해 AX 실증밸리 조성 및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반드시 성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국민신문고 중단에 ‘광주신문고’ 운영

시청 누리집에 오늘부터 가동

광주시는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신문고’를 구축,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등 주요 민원 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자, 즉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 및 민원창구에서 우편·방문 접수 체계를 가동했다. 접수된 민원은 수기로 관리하는 등 긴급 대처하고 있다.

광주시가 마련한 ‘광주신문고’는 광주시 누

리집 내 전용 메뉴를 통해 운영되며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일반 민원·공무원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한곳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 복구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황인재 시민소통과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를 신속히 구축했다”며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이병훈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해야”

“광주·전남 AI데이터센터 시너지 극대화”

이병훈(사진)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12일 “국가AI컴퓨팅센터가 광주에 설립돼야 AI 데이터센터 통합 집중화를 통한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시는 기추진되고 있



는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국내 AI 산업·융합 촉진 및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내 AI 기업 700여개 이상(광주지역 200여개)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주와 전남은 서로 경쟁할 대상

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광주 AI 산업 생태계 중심의 집적단지와 민간 주도의 전남 오픈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화를 연계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의 효율적인 AI 산업 상생을 위해 ▲AI 인재 양성 협력체계 구축 ▲AI 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 ▲공동 연구개발 ▲정주 여건 공동 개선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변은진기자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광주경찰청
JEONJU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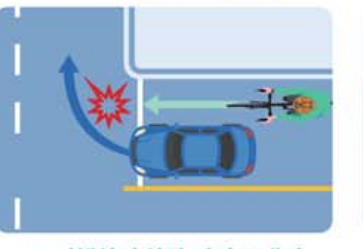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①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① 자전거는 한 줄로!



② 우회전 차량에 주의!



③ 횡단보도는 두 발로!



②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불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가능

③ 서행하며 차량 먼저 보내기
차량 운전자의 시야 벗어난
사각지대 주의 필요

④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횡단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②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①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

②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①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② 직진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

CMYK